

수도권서 밀려오는 코로나 델타... 지금 못 막으면 대 유행

광주 3일 연속 두자릿수 확진·전남 완도 등 확진자 증가
확산세 심각 ...시민 불편 감수한 방역 대책 강화 불가피

광주·전남이 수도권에서 밀려드는 코로나19 델타 변이바이러스 영향으로 대 유행의 기로에 섰다. 광주는 3일 연속 두자릿수 확진자를 기록하고 있고, 전남도 완도 등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거세다. 특히 휴가시즌을 맞아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코로나19 감염세가 약하고, 거리두기 규제도 느슨한 광주·전남으로 타 지역 피서객이 몰려드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우려됨에 따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긴급 민관 공동대책위원회를 열고 거리두기 상향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전남도도 3주간 특별방역기간을 운영하기로 했지만 수도권발 4차 대유행에 대한 사·도민의 불안감은 확산하고 있다. <관련기사 2면>

12일 광주시와 전남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시는 이날 오후 2시 현재 8명이 추가돼 총 누적 확진자는 3046명으로 늘었다. 광주는 지난 9일 21명에 이어 10일 23명, 11일 14명 등 최근 3일 연속 두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 최근 발생 확진자 중 30% 이상이 수도권 관련이다. 이날 확진자 8명 중 3명도 경기도 팔포도인 관련이며, 부산 방문 관련 1명, 서울 중랑구 등 타 시도 확진자 관련 2명, 조사중 2명 등이다. 광주의 신규 확진자는 지난 1주(5~11일) 하루 평균 11.3명, 해외 유입(5명)을 제외한 지역 감염은 10.6명이다.

정부 지침상 광주에서는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3일 이상 인구 10만명당 1명(15명)인 기준에 달할 경우 2단계를 적용한다. 광주시는 아직 2단계 기준에는 못 미치는 만큼 소상공인 피해 등을 감안해 1단계를 유지하면서 부분적으로 수칙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는 이날 오후 긴급 민관공동대책위원회를 열고 13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전남에서는 11일 19명, 12일 오후 5시 현재 9명 등 이들 새 26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와 비상이 걸렸다. 누적 확진자도 1734명으로 늘었다.

11일 나온 19명의 확진자 중 12명은 배를 타고 들어갈 수 있는 완도 금일도에서 발생, 조용하던 섬이 발칵 뒤집혔다. 해조류 가공공장 사장의 아내(전남 1713번)와 외국인 노동자(전남 1714~1724번)가 한꺼번에 감염됐다. 이에 앞서 금일도에서는 지난 10일에도 해조류 가공공장 사장(전남 1704)과 지인 2명(1705, 1706번)의 감염이 확인됐다. 방역당국 파악 결과, 이들은 모두 지난 5일 완도 금일읍장 취임을 축하하고, 고향 친구와 지인을 만나려고 섬을 찾은 광주 3001번 확진자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잠정 조사됐다. 다만 금일읍장은 확진자와의 식사 등에 참여하지 않아 감염되지 않았다.

방역당국은 광주 3001번 확진자가 지난 5일 단 하루 동안 섬에 머무는 동안, 지인 모임 등을 통해 광주 1명(광주 3025번)과 강진 1명(전남 1701번), 완도 15명 등 17명이 연쇄 감염됐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또한, 광주 3001번 금일도 방문에 동행했던 광주 3025번의 부인과 부부가 운영하는 모텔 종업원 등 2명이 재빨리 감염된 점도 예사롭지 않다고 보고 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날 오전 브리핑을 하고 "수도권 주민들이 타지역으로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와 휴가철 관광객 등을 고려하면 '지금 막지 못하면 그동안의 노력이 불거질 수 있다'며 "12일부터 이달 말까지 3주간 특별 방역 주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광주 북구 선별진료소 '복직'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12일 오전 광주 북구 선별진료소가 코로나19 감염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20대 대선 막 올랐다... 여야 주자들 예비후보등록

당 경선 레이스도 본격화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 윤석열 전 검찰총장, 유승민 전 의원 등 여야 잠룡들이 12일 제20대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 등록에 나서면서 대선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내년 3월 9일 치러지는 대선에서 당선되는 후보자는 두 달 뒤인 5월 10일 대통령에 취임한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 여야 잠룡들이 12일 제20대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 등록에 나서면서 대선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내년 3월 9일 치러지는 대선에서 당선되는 후보자는 두 달 뒤인 5월 10일 대통령에 취임한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 여야 잠룡들이 12일 제20대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 등록에 나서면서 대선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내년 3월 9일 치러지는 대선에서 당선되는 후보자는 두 달 뒤인 5월 10일 대통령에 취임한다.

으로 이날 예비후보 등록을 완료했다. 유 전 의원은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탓에 이번 주에 예정했던 공식 출마 선언을 잠정 연기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시대 문제를 해결하는 유능한 대통령이 되겠다"며 "반드시 야권 단일후보가 돼 국민의 선택을 받아 정권을 교체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여권 대선주자들도 예비 후보 등록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본 경선에 오른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중앙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현재 지지자인 만큼 사퇴 시점에 따라 등록 계획도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대신 이 지사는 당 경선 후보 등록을 마쳤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박성준 대변인을 통해 중앙당에 본경선 후보 등록을 1호로 완료했다.

한편, 여야는 모두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레이스에 돌입한 상태. 민주당은 전남 예비경선(컷오프)을 거쳐 8명의 예비후보 중 추미애·이재

명·정세균·이낙연·박용진·김두관 후보(기호순)를 본 경선 후보로 압축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4차 대유행을 맞으면서 당 내외에서 경선 연기론이 분출하고 있어 어떠한 결론이 도출될 것인지 주목된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도 이날부터 대선 경선 예비후보 등록에 돌입했다. 당 안팎 주자가 14명에 달하는 만큼 역대급 혼전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다단계 컷오프(예비 경선)제 도입으로 단계적으로 후보 수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관건은 국민 여론조사 반영비율이다. 당내에서는 당밖 주자들을 위해 여론조사 비율을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20대 대선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을 '선거 240일 전'인 12일부터 내년 2월 12일까지 받는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후원회를 만들어 선거비용제한액(513억 900만원)의 5%에 해당하는 25억 6545만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코로나 방역 뚫린 프로야구 중단

올림픽 끝나는 8월 9일까지

KBO리그가 두산·NC발 '코로나19 사태'로 시즌 중 중단됐다. <관련기사 22면>

KBO는 12일 서울 KBO 사옥에서 긴급 이사회를 열고 13~18일 경기를 취소하고, 추후 편성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일 도쿄 올림픽 휴식기를 앞두고 오는 18일까지 예정됐던 전반기가 종기 종료됐다.

10개 구단 사장은 3시간이 넘는 격론 끝에 중단 결정을 내렸다.

NC에서 3명, 두산에서도 2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또 지난 2일부터 두산과 만났던 KIA에서도 밀접접촉자 두 명이 나오면서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서울발 코로나19 확산세 속 두산·NC발 코로나로 파행 운영이 이어지자 결국 KBO는 중단을 결정했다.

코로나19 심각성이 명분이었지만, '원칙을 깬

다'는 논란과 '형평성' 문제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을 전망이다.

KBO가 지난 7일 발표한 코로나19 대응 통합 매뉴얼 개정판에는 '구단 내 확진자 및 자가격리 대상(선수) 인원수와 상관없이 구단 대체 선수들을 투입하여 리그 일정을 정상 진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시즌 초부터 확진자 발생 시에도 정상적인 리그 진행을 이야기했던 KBO는 원칙과 규정을 깨고 이번 결정을 내렸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7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1]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전라남도

여러분의 운전습관과
보행습관은 안전한가요?

**지금 바로
교통안전
서약운동에
참여해보세요!**

QR코드를 촬영하거나, 전남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교통안전서약운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교통안전서약운동

우리 모두가 지켜야하는
교통 안전 습관
10가지 항목 체크하기

- ☑ 교통법규 준수하기
- ☑ 음주운전 근절 및 예방하기
- ☑ 제한속도 20% 감속하기
- ☑ 횡단보도에서 핸드폰 통화하지 않기
- ☑ 도시지역 제한속도 30~50km 이하로 운행하기
- ☑ 어린이 보호 구역 안전운전하기
- ☑ 급정차, 급출발 안하기
- ☑ 불법 주정차 안하기
- ☑ 횡단보도에서 멈춰서 살피고 건너기
- ☑ 빗길, 눈길, 내리막길 제한속도 30% 감속하기

8~37H 빨간불! 앞으로 노력하면 되요!
4~67H 노란불! 잘하고 있어요! 조금만 더 힘을 내세요!
77개 이상 녹색불! 교통안전인식이 높은 당신 앞으로도 유지해주세요!